

숭고한 희생정신 추모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향군,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 55용사 기려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향군은 3월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향군 본부 앞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서해 수호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 사건과 교훈을 되새겨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희중 회장 직무대행(육군부회장)은 기념사에서 “2002년 6월29일 북한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전사한 참수리 357호 정장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호국 영웅들과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으로 순직한 천안함 46용사와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해군 UDT 소속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같은해 11월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현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만 향군회원 모두 호

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 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향군은 결의문을 통해 조국과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과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 가치인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미 간의 강력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각급회도 지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실시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향군은 3월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향군 회관 앞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서해 수호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향군 안보활동 방향 공유, 성공적인 안보교육 기여

2021년 신임 안보교수 워크숍, 위촉장 수여

향군은 3월29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2021 향군 안보교수 워크숍을 갖고 위촉장 수여식, 최근 향군 활동상 동영상 시청, 신임 안보교수 소개 및 상견례, 향군소개 및 안보활동 기조 설명, 안보교수 운용 방침을 소개했다.

성공적인 향군 안보교수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은 향군 안보교수 29명 중 16명이 참석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은 새로 선발된 안보교수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향군 안보교수로서 모든 안보교육의 기준은 ‘향군안보활동기조’에 입각해 시행하고, 향군회원, 학생,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준비로 균형된 감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소규모라도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신임 안보교수들이 각자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향군의 안보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안보교수들은 향군이 지향하는

안보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안보교육활동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된 안보교수들은 향후 2년간 향군 각급회와 지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장병,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할 예정이다.

정기 전국 총회 소집 공고

당회 2020년도(제73차)·2021년도(제74차) 정기전국총회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 소집함.

- 다 음 -

- 일 시** : 2021년 4월 29일(목) 10:00~15:00
※의안투표시간 : 4월 29일 10:00~14:59 (개표 15:00)
- 방 법** : 원격출석 및 결의권행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의결안건**
 - 제73차 정기전국총회「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안 등(제1호~제4호)」일괄 상정안
 - 제73차 정기전국총회「총회권한대행 이사회 의안(제5호~제9호)」일괄 상정안
※총회권한대행 이사회: 2020-1차 이사회(20.3.20), 2020-3차 이사회(20.10.29)
 - 2021년도 제74차 정기전국총회 의안
 - 제10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11호 의안 : 2021년도 직영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12호 의안 : 2020회계년도(제58기) 결산안
 - 제13호 의안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
 - 제14호 의안 : 정관 변경안(이사 발의)
 - 제15호 의안 : 정관 변경안(본부 발의)
 - 제16호 의안 : 임원 선임안

※문의사항은 재향군인회본부 조직복지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 화 : 02-417-5295

2021년 3월 3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김진호

이달의 안보칼럼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와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과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신뢰 및 협력복원에서 나타난다. 바이든 정부는 3월12일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최초로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쿼드는 범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4개국 안보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다자 정상회담으로 쿼드를 택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미 국무, 국방장관은 3월 15일부터 한국, 일본, 인도를 방문하여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주요 인사들은 미 국무, 국방장관의 한국방문과 2+2 회의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번 방한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 추진 3대 키워드
오바마, 원칙과 절차, 동맹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함에 있어, 미 정부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관료들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바이든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정책방향과 절차를 따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의사결정에 있어 하향식보다는 실무의견과 유관기관 공조를 중시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적용한다. 국가안보 및 국방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원칙과 절차가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 및 우방국 공조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동맹 및 우방국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최우선 전략목표
인도 태평양지역 우위 확보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인도태평양에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인도태평양을 미국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 트럼프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더욱 정교하게 보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위협이 자리한다. 필립 데이비스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을 “가장 큰 우려(primary worry)”로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강압 외교를 자유롭고 개방된 기존질서를 무너트리는 요소로 간주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국과의 긴장조성을 방지하고 우발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대화와 제도 보안을 병행할 전망이다.

대외전략 구상 핵심, 쿼드(Quad)
역내 질서 주도 역할 수행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은 4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맹 및 우방국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중국 억제 및 북한 비핵화 방안이 담길 것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에서, 나토와 같이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데이비스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쿼드를 “민주주의의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면서, 쿼드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부각했다. 쿼드는 안보협력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국



신 경 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위원

제질서 등을 다루게 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나토와 같은 조약에 의한 안보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상호 협력체로서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쿼드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향후 양자 및 다자 공동연습·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주요 국방파트너”인 인도도 미국과 공동연습,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공유, 우주·사이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쿼드의 위상과 영향력, 활동범위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과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화생무기와 인권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부 핵심 관료들은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약속과기로 좌절을 경험한 인사들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보다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Plan B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대외전략 구상·이행에 있어 동맹인 한국의 입장과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동시에 동맹의 역할분담과 기여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국익을 고려하면서 공세적, 선제적, 창의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한·미 간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대화채널의 확보 및 활용이 요구된다.

한·미 현안이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한·미는 최종운용능력 검증 및 조건충족 시기 결정에 있어, 군사적 판단이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강조한 실사격 훈련여건 보장은 Fight Tonight 대비태세의 핵심이다. 주한미군의 실사격 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시급하다.

쿼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쿼드에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면 창의적인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도하는 방안, 한·미·일이 함께 아세안 국가에 대해 안보지원을 하는 방안 등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일간 정치·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고 한·일 안보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한·미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대북한 전략 및 대중국 전략을 일치시켜야 한다. 한·미간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한 미대사 및 연합사령관을 통해 한국의 입장이 미국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 및 연합사령관과의 주기적인 소통,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현지 대사 및 사령관의 견해를 중시하는 업무수행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와 협력했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는 친선단체들도 많다.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안보전망대

“한미 방위비 타결, 동맹 가치 재확인”

한국 국방연구원 이수훈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보고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에서 “한미 방위비 협정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체결된 첫 협정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향후 5년 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한미 양국이 다년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의 반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 갈등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의 내용은 2025년까지 다년간 유효하며 2021년도 분담금을 2020년 대비 13.9% 증액시켰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산정에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전년 대비 13.9%가 증액되었다.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골든타임”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발행 온라인시리즈 2021년 8호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보고서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자력갱생노선은 김정은 정권 집권 2.5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며 자력갱생노선으로는 집권 2.5기 전반을 관리하기 어렵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 돌파구는 북한 내부가 아닌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찾아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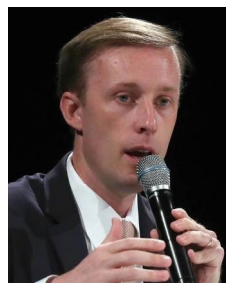
“남한 핵무장...북, 핵 보유 공고화할 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월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반도위원회 온라인 대담에서 남한 핵무장 관련 질문에 “남한 내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굳힐 것”이라며 한국 핵무장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핵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북한이 오히려 자신들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 핵무장은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바꿀 것”이라며 “일본이 핵을 보유한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며 “중국은 자칫 자신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월22일(현지시간)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와 관련해 아직 북한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직접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이 북한과 접촉한 것은 외교가 북한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 참여해 건설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역내 행위자들과 관여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뒤 “그 사이에 미국은 자체 방어와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방어를 위해 계속 굳게 서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3·34대 박세환 전 회장 별세... 향군장 엄수

‘젊고 힘 있는 선진 향군 건설’ 기치로 조직 발전에 큰 기여

제 33·34대 향군회장을 역임했던 박세환(81세) 전 회장이 3월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박 전 회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 ROTC1기로 입관, 육군 대장까지 진급하여 2군사령관을 역임했으며 30여 년의 군생활을 마친 뒤 15대, 16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박 전 회장은 2009년 9월 제 33대 재향군인회장으로 선출되어 “젊고 힘있는 선진 향군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1천만 향군회원과 함께 1·2·3 운동(향군장학금 100억, 향군정회원 200만명, 보훈성금 300억 달성)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향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재임기간 중 잡실 향군타워 준공,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울곡포럼 및 안보강좌 등 대국민 안보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한미 양국이 조건과 시기를 조정 합의하도록 했다.

故 박세환 장군님을 추도하며

성실과 겸손, 나라에 대한 충성이 곧 일상이었던 분

성실과 겸손을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군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글로 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세환 장군님은 성실과 겸손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곧 일상이 되었던 분입니다.

살아생전 장군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 또렷합니다. ROTC 1기이시며 ROTC 최초의 장군, 사단장, 군단장, 4성 장군, 향군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장군님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붙은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라는 단어입니다. 그 수식어는 장군님에게 영광의 면류관인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가 할 때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은 후일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이 되어버린 다짐의 시입니다.

하루 24시간 모든 언행의 길잡이인 동시에 나침반인 글귀입니다.

그래서 장군님은 ROTC의 신화가 되셨습니다. 출신불문, 군인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지역불문, 국민들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거처하실 때의 일입니다. 지역사단장인 장군님은 백담사를 찾아갑니다. 지난 날 청와대에서 참모로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도리이자 의리였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장군님은 전역위기까지 내 몰립니다. 어찌 자기에게 닥칠 불이익을 예상치 못했겠습니까?

메모지 한 장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장군님의 역사 사랑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부관이 실수로 자료 한 박스를 쓰레기로 알고 내버렸답니다. 장군님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 합니다. 귀중한 메모들이 사라졌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부관에게는 한마디 질책도 안하셨다 합니다.

월남전에서 창설하신 ROTC장학금은 지금까지 1600여명에게 17여 억을 지원했습니다. 향군회창 재직 시 창설하신 100억 장학금 모이기 운동은 현재 4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자서전수익금 전액, 5·16 민족상 상금 등 총1억 여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출장가실 때 1등석을 이코노미 석으로 바꾸어 절약한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이기도 하신 장군님은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재직 때마다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장군님은 평소에 농담처럼, 간증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진급시켜 주셨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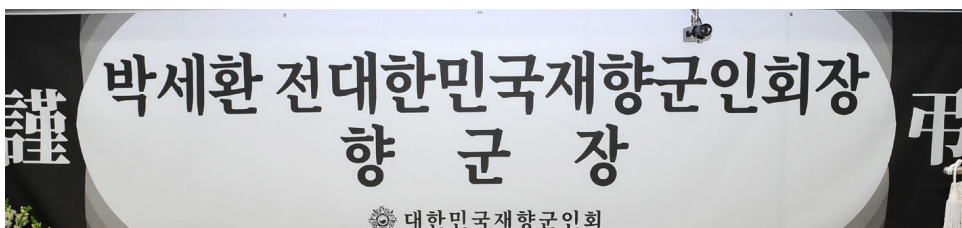
천국의 영생이 이 땅의 부대끼는 삶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6·25전쟁이후 가장 위태로운 안보상황입니다. 해방 직후의 좌우갈등에 버금가는 이념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난 국으로 제2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지혜와 경륜과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고비에서 이 모든 것을 놔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니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시옵소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박세환 장군님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영전에 바칩니다.

이 정 호 전 향군 홍보실장



한미 국방장관 회담...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한미 공동목표



서울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III) 미국 국방부장관이 3월17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

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

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왔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 준공

유해 신원확인 위한 통합기능 시스템 완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가 3월24일 준공됐다. 신원확인센터 건물은 지상 3층의 연면적 3,747㎡ 규모로 유해보관소, X-Ray실, 3D스캐너실(1층), 유해감식·자료분석실(2층), 유전자검사·DB분석실(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항온 항습, 자동화 모빌렉 기능을 통해 유해를 최상의 환경에서 유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비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신원확인센터가 유전자 분석 기능까지 통합된 세계 유일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뒤 "미국 DPAA(하와이 주)의 경우 유



전자 분석을 도버 공군기지(텔라웨어주)에서 진행해 시간적 거리 차이가 있는 반면 우리는 유해감식과 유전자 분석의 전 과정을 '신원확인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신원확인센터 준공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미 수습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향상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단신

서해수호의 날 맞아 '안보결의 주간' 운영

국방부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3월22일부터 26일까지 '안보결의 주간'을 운영했다.

기간 중 각급 부대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특별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55용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다.

특히 해군은 지휘관 주관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각 부대 주관으로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해양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필승 신념을 다졌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육군2군단, ASF 방역 활동

육군2군단이 멧돼지 활동이 빈번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군단은 야생멧돼지 활동이 왕성해지는 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ASF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방역지원을 요청한 춘천시 서면지역에서 3월3일부터 화생방대대 장병과 제독 차량을 투입해 오월리에서 덕두원리 구간 19km 도로에서 일일 2800l의 소독제를 살포했다. 서면은 춘천에서 발견된 ASF 80건 중 62건이 발견된 지역으로 앞으로도 ASF 발생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방 지역에서 방역 초소를 운용, 모든 입·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하고 있으며 부대 활동과 교육훈련 간에도 자체 방역 팀을 운용하는 등 ASF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군1전비, 부대 인근 학교 방역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월 초·중·고교 신학기를 맞아 최근 부대 인근 6개 초·중·고교에 대한 방역을 펼쳤다. 1전비는 제독차 1대와 방역요원 2명을 지원해 학교 정·후문 주변 도로와 학교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제독차가 진입할 수 있는 학교 내부 주차장 및 통행로에 대한 방역도 완료했다.

공군 1전비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사회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송정역, 광주공항, 우체국 등에 방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대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폭설 영동지방, 제설작업 지원

3월1일 강원도 영동 일대에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도로가 마비된 가운데 다음날인 2일 해군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 곳곳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해군 1함대 108조기경보전대 장병들은 제설 차량을 동원해 양양 시내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며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왔으며 공병대대도 제설 차량을 이용해 동해 시내 곳곳에서 제설작업 대민지원을 실시해 폭설로 마비된 도로를 복구하는데 힘을 보탰다.

해병대 연평부대 환경정화활동

해병대 연평부대는 3월11일 창설 4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깨끗한 연평도 만들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연평부대는 이날 기념식을 간소하게 진행한 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장병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부대별 주둔지 외곽 및 기동로, 손길에 절실한 민가 등 도서 일대에서 잡목과 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평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생활 구역도 정비를 자처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국방장관, UAE와 인도 방문

서울 국방부장관이 3월21일부터 28일까지 국방교류협력을 위해 UAE와 인도를 공식 방문했다.

먼저 UAE를 방문한 서 장관은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한-UAE 고위급 정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교류와 국방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한 후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인도를 방문한 서 장관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및 방산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도 방문기간 중 서 장관은 2019년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지난 3년 간 건립을 준비해 온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식 행사를 개최하고 공원 내 6·25전쟁 당시 최대 규모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인도 군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한 6·25 참전기념비의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전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각 군이 운영하던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통제는 합참으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훈령에 반영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 훈령을 현행화했다. 또 적극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근거 규정들을 보완 개선했다.

또 재난관리의 범위를 군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는 물론 민간 재난 대응·복구 지원, 긴급구조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해외재난 긴급구조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도 규정했다.

향군 지원 '추모의 벽' 건립공사 첫 삽

내년 6월 완공, 한국전 전사자 명단 새겨져

향군이 전국적인 모금을 통해 건립기금을 지원한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공사가 3월 16일 시작됐다. 26년 만에 이뤄지는 작업으로 기존 공원 자리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공원과 추모의 벽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추모의 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재단(이사장 존 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총 공사비용 2천200만 달러는 모두 확보했으나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재단은 400만 달러를 더 모금할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는 향군을 비롯하

여 대한민국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워싱턴 평통, 워싱턴 여성회, 한미여성재단, 워싱턴 카투사전우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사는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이며 재단 측은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로 내년에 7.27 정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추모의 벽은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내 추모의 연못을 32도로 기울여진 화강암 판으로 둘러싸게 된다.

거기에 한국전에서 전사한 3만6천574명의 미군, 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200여 명의 명단이 새겨지게 된다.

제6회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희생 헌신 영원히 기억할 것



국가보훈처는 3월26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라는 주제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갖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55용사의 명예와 얼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며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단신

천안함 생존 장병 12명 국가유공자 인정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자 중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3월21일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용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존 장병 58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며 1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국가유공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

국가보훈처는 3월11일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이동편의 증진 및 예우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버스 이용에 최상의 예우 및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서약'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1950년대 후반

부터 현재까지 70여 년간 국가유공자의 발이 되어 준 버스연합회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루어졌다.

버스연합회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군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버스 감면을 시작했고 현재 부족한 재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시내·시외·고속버스 이용에 무료 및 감면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 이천호국원,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국립이천호국원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3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제9회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독립·호국의 참뜻을 올바르게 조명해 보훈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표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함 ▲역사·인물·장소·스토리 등을 소재로 자유 창작 ▲국내외 독

립운동 사적지 ▲보훈현장 탐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 시상은 대상 1명에게 국가보훈처장상과 상금, 최우수상 2명에게 서울지방보훈청장·이천시장상과 상금, 우수상 5명에게는 이천교육지원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장려·특선·입선 87명에게는 호국원장·이천경찰서장·이천소방서장상이 수여된다.

국제보훈사업 성공 추진위해 주한미군전우회 역할 중요

국가보훈처장, 주한미군전우회장과 화상 회의...협조 당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3월9일 주한미군전우회(KDVA) 빈센트 브룩스 회장과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보훈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전우회의 협조와 브룩스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올해 기존의 유엔참전용사의 재방한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여러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미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기공식,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연과 함께 진행된다.



한미동맹 세미나는 워싱턴D.C. 뿐만 아니라 하와이 및 서울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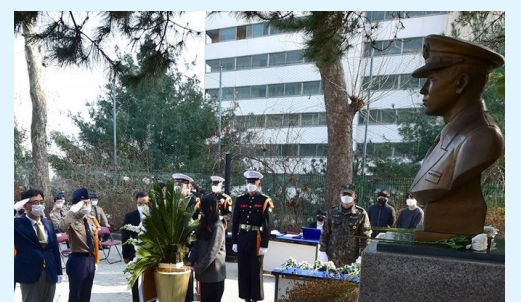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 및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초청 감사행사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초청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2연평해전 영웅, 고 윤영하 소령 추모

국가보훈처는 3월10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추모 행사를 고인의 향상이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입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윤영하 소



령을 비롯하여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③

젊고 역동적인 '향군' 구현위해 최선 다할 것

대구광역시 향군은 8개 구 군회 5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은 물론 유사시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타 지역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활동 등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역대회장들이 50만 대구시 향군회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구광역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작년 11월 대구시의회 본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는 대구시 향군의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회원 숙원, 향군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또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250만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본회에서 지원한 10만장의 마스크를 대구 보훈지청과 함께 지역 내 3만 여명의 보훈가족에게 편지와 함께 일일이 전달하여 안보단체로서의 향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대구시 호국안보단체와 함께 방역과 홍보 캠페인 참여, 향군회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극복활동으로 대구 광역시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향군 조직의 근간인 정회원 가입 캠페인에 8개 구·군 회장과 사무국장들의 노력으로 대구시 향군 8개 구 군회 모두가 100%이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대구시 향군의 저력을 타 시·도회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금년에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향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구시회 청년단 창단 및 활성화를 비롯하여 대구시 조례 개정안 통과에 의한 사업비와 운영비 확보에 따라 젊고 힘있는 최고의 안보단체로 거듭 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젊은 향군 정회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다.

대구시 향군은 지역 내 군부대 지휘관들과의 협조는 물론 현역장병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과 예비군지휘관들을 직접 만나서 조직의 근간인 읍·면·동회장을 겸임토록 다방면으로 협조한 결과 현재까지 동회장 12명을 임명 하였으며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앞으로 예비군지휘관 출신 동회장들과 사무국장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젊은 향군 정회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젊은 회원 확보를 위한 청년단



김 인 남
대구시 향군회장

창단 및 활성화이다.

대구시회는 과거 2007년경 향군청년단 발대식 이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에 활동이 부진하였다. 금년도를 "청년단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젊은 청년단으로 재정비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단 활성화에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내 자신이 향군청년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단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향군과 함께하는 학생 나라사랑 안보·역사체험 교육 실시이다.

대구시회는 안보 교육활동이 사실상 향군의 존재 목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호국안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하면 낙동강 방어 작전의 최후 보루 지역인 만큼 2017년 부터 해마다 다부동전적지, 국립 영천호국원과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거제포로수용소 등과 연계한 전적지 체험활동 등 지역 내 안보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호국안보활동이 향군 존립 근거 젊은 회원 확보로 힘 있는 향군 구현

넷째, 주기적인 민·관·군과의 유대강화활동이다.

대구지역에는 제2작전사령부 등 군부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전에는 호국단체연합회(16개단체)와 향군이 해마다 호국단체한마음대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군부대 방문 등의 유대강화는 물론 부대 창설 기념식에도 함께하면서 주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 의회, 교육청, 보훈청, 그리고 지역 내 각종 학교와 경제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향군과의 유대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젊고 힘 있는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각급회별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다가올 우리 향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부산향군, 6.25 참전국 다문화 자녀 장학금 지급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은 3월12일 향군회관 강당에서 65차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6·25참전국 다문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에 향군 감사패 수여

전북 향군 조직 활성화 및 향군회관 신축 도움



전라북도 향군(회장 백상록)은 3월23일 전라북도 의회를 방문, 송지용 의장에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감사패를 수여했다. 송지용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은 평소 향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들의 숙

원사업인 향군회관 건물 신축에 많은 도움을 줬다.

송지용 의장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 왔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미 새크라멘토 향군, 보훈병원에 마스크 지원



미 북서부 새크라멘토 향군(회장 박상운)은 3월16일 랜초 코도바에 위치한 연방 보훈병원을 방문, 마스크 1,500장을 전달했다. 마스크는 총영사관에서 재향군인회를

통해 미 향군에 기부해 달라고 전달한 비말 마스크이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보훈병원 측은 "한인사회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기를 축하합니다

■전라북도 향군

■미국 중남부 향군



회장 백상록
(예 육군소위)



회장 정태환
(예 육군 병장)

경기 시흥시 향군, 청년단 발대식

“지역사회 봉사로 향군위상 높일 것”



경기도 시흥시 향군 청년단(단장 강성훈)은 3월6일 향군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나아가서 향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캐나다 현지에 ‘가평전투 기념비’ 건립

캐나다 동부 향군, 모금 및 기념우표 발행...비용 지원

캐나다 동부 향군(회장 송선호)이 3월28일 캐나다 동포와 가평군이 뜻을 모아 현지 한국전쟁 참전자 묘역에 ‘가평전투 기념비’를 세운다고 밝혔다.

기념비는 7월 27일 정전기념일에 맞춰 토론토 외곽 북쪽에 있는 메도우베일 참전자 묘역에 건립되며 이곳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유명을 달리한 516명의 전사자 위패가 모셔져 있다.

송선호 회장은 “가평 전투는 중

공군 1개 사단을 격침하고 서울을 수호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이를 기념하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세워지는 기념비는 밴쿠버와 위니펙에 이어 세 번째다.

가평군이 비석과 돌판을 사서 보내주는 제반 비용 약 4만 캐나다 달러(3천600만 원)를 지원하고 캐나다 동부 향군이 대지를 사고, 기념비를 설치하며 사후비용을 책임진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㉘

2003년 창간 안보 전문매체, 인터넷 신문 ‘코나스’

창간 18년 ... 국방·북핵 등 안보분야 망라, 전문매체로 자리매김

향군의 인터넷 신문 코나스(Konas)는 2000년대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정보화 물결 속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함에 따라 2003년 11월11일 인터넷 안보전문 매체로 창간됐다.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 탄생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 정립

국가안보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발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운용될 때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은 물론 불의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지난 18년간 코나스는 향군 안보활동의 중추부서인 호국안보국에서 정치·외교·국방·북핵 등 안보분야를 망라하며 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 정립이라는 소프트파워 증진에 노력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코나스는 사이트 개설 이후 연합뉴스와 계약을 체결해 다양한 뉴스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청년·대학생 네티즌 초청 간담회, 안보체험수기 공모 우수작 시상, 우수네티즌 선정 포상, 외부 전문가 코나스 자문위원 위촉, 참전 및 친목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진 초청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특히 2011년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검색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어 독자들에게 안보뉴스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800여개의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하는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가입하여 인터넷 안보전문매체로서 대외적 위상을 확립하고 건강한 인터넷 언론문화를 선도하는 등 국내 최고의 안보 전문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향군이 2017년 김진호 회장 체제 출범 후 ‘향군 정체성 제정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향군의 정체성을 ‘안보단체’로 규정하여 순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래 코나스도 ‘향군 안보활동 기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나스는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선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향군 안보활동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적시적 기사 게재와 전파로 범국민 안보의식 고양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향군 안보활동 3대 중점사항을 기반으로 주요 안보이슈에 대한 안보칼럼을 주1회 고정 게재함으로써 인터넷 안보매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민 공감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독자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코나스는 향군의 외연을 넓히고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대학생 인턴기자들을 모집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대학생 인턴기자는 향군이 주관하는 대학생 휴전선 국토대장정이나 지역별 안보활동에 동참하고 전국 소재 유엔군 참전비와 전적비 탐방 등 현장취재를 통해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여 올림으로써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군 안보활동 기조 바탕으로 활동
범국민 안보의식 고양, 신뢰성 제고

지금은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이 더욱 익숙한 시대다.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확장으로 독자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 검색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이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늘어났다. 코나스도 인터넷 매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 현실을 올바르게 알려 신뢰받는 안보 전문매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호국안보국)

군번만 있으면

누구나 향군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정회원가입

향군 가맹점 보기

본부 및 각급회 소식

본부 및 각급회 연락처

■ 정회원 자격 : 군번호지자 누구나

-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 정회원 특전

- 향군 편의시설 할인혜택
 - 중앙고속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 전국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 전국 가맹점별 할인(10~30%)
 - 군인공제회관 '엠플러스 웨딩' 할인 (웨딩, 뷔페 등 전품목 15%)
- 자녀 장학금/생계보조금 지급
- 국립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자 안내
- 각종 향군행사 초청 및 참가
- 기타혜택 (복지물 등)

■ 평생회비 (단 1회만 납부)

병	부사관·위관	영관
1만원	2만원	5만원

APP 다운로드 방법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검색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하여 설치 후 실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 가입문의 : 02)417-5412
홈페이지 : http://www.korva.or.kr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2월21일 ~ 3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3월4일 향군회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구회장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현안업무 논의.

강동구회 : 3월15일 향군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전망을 주제로 안보교육을 가진 후 동회장협의회 회 개최.



노원구회 : 3월11일 DNJ컨벤션에서 향군 청년단 및 봉사단 재조직 준비 임원회의 개최.

강남구회 : 3월15일 향군회관에서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업무 협조 및 예산관련 토의.

성북구회 : 2월25일 향군회관에서 보훈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유대강화.

노원구회 : 3월8일 장애인 재활시설 '더 흙'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영등포구회 : 여성회는 3월11일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참배 및 자연정화 활동 실시.

부산시 향군



부산진구회 : 여성회는 3월2일 삼일절을 맞아 지역 출신 독립투사로 부산진경찰서장에게 폭탄을 투척, 옥중 순국한 박재혁 의사 동상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3월11일

관내 밝은세상 안과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증진에 기여.

대구시 향군



수성구회 : 3월10일 임대 사무실 별 자위소방대 대원을 소집, 소방안전 교육 및 피난 유도 훈련 실시.

달서구회 : 여성회는 매주 목요일 두류공원에서 '사랑해 밥차' 정기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강화군회 : 3월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 기려.

경기도 향군



안양시회 : 3월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종찬, 문형근, 조광희 도의원과 정담회를 갖고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활성화 지원방안 논의.



여주시회 : 3월5일 여주관내 여주 5일 장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포. 3월9일 관내 점동면 덕평 1리 일대에서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양을 위해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 펼쳐.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3월10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읍 면 동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군 업무 및 주요 현안 논의. 청년단은 3월13일 관내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다과와 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대전 충남 향군



보령시회 : 2월2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 모두가 지역을 지키는 방역사령관으로 동참을 호소하는 '힘내라 보령, 고마워요 보건소' 챌린지 참여.

전라북도 향군



고창군회 : 3월2일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회관 옥상누수공사 및 새 고창 장례식장과 업무협약 논의. 2월26일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회관기능 보강 및 군민 안보의식 고취 등에 대해 논의. 3월16일 새 고창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복지 증진.



전주시회 : 3월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터전이 붕괴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 결재 캠페인' 동참. 청년단은 3월11일 전주한현의 집을 찾

아 사랑의 헌혈봉사 활동 펼쳐. 3월19일 전주대대 총경관에서 장병 20명을 대상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내용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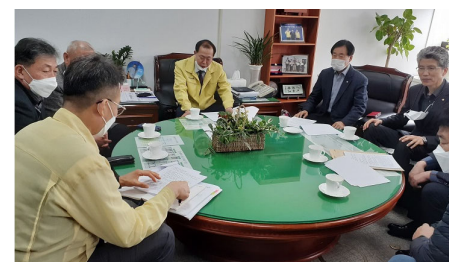
김제시회 : 삼일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 나라사랑과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높여.

무주군회 : 2월22일 지역 예비군지휘관을 향군회관으로 초청, 안보 간담회를 갖고 친목 도모.

완주군회 : 여성회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남원시회 : 3월9일 남원대대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상호 업무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유대강화.



군산시회 : 3월15일 군산시청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요청.

정읍시회 : 3월17일 문화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봄맞이 향군회관 대청소 및 주차장 화단 정비.

장수군회 : 여성회는 3월 19일 봄을 맞이하여 도로변 정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3월10일 안보회관에서 신임 시 군 구 회장 간담회 개최.

나주시회 : 여성회는 3월2일부터 18일까지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동사무소에서 자원 봉사활동 실시.

목포시회 : 목포시가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온 '사회단체 릴레이 목포사랑운동' 동참.



보성군회 : 3월10일 참전용사 기념탑 주진위원 정산회의에 참석한 후 현충탑 참배.



화순군회 : 3월10일 충의대대 내에서 열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도식 참석.



영광군회 : 3월8일 영광군청을 방문, 김준성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계획 설명 및 예산 지원 요청.

영암군회 : 3월17일 지역 군부대인 왕인대대를 방문, CCTV 모니터 전달.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2월24일 경북전문대학교 잔디광장과 대강당에서 열린 부사관 학군단(RNTC) 5기 임관식에 참석, 임관생도 격려.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2월26일 사무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 난방기를 지원해 준 이주찬 도회 이사회 회장에게 감사의 뜻 전달.



김해시회 : 여성회는 매주 토요일 김스뷔페 후원으로 관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점심도시락 배달봉사 실시.



거제시회 : 2월25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관내 사등면 광리길 생계보조 어르신댁을 방문, 위문활동 실시. 여성회는 3월10일 연초면 소재 작은 예수 집에서 점심식사 봉사활동 실시.



통영시회 : 2월22일 이순신 공원내 위령탑에서 거행된 제47주년 통영 해상순직 장병 합동 위령제에 참석, 뉘 가려.

하동군회 : 3월18일 코로나19 상황 아래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독후감콘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하고 하동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중 고교에 안보도서 전달.

◇회원의 목소리

‘서해 수호의 날 의미’와 우리의 자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당시 희생된 군장병과 주민을 추모하고 있다.

그동안 서해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북한의 도발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날이 ‘천안함 피격일’인데 정부에서 이날을 기준으로 ‘서해수호의 날’을 지정한 것은 그 의미가 높다고 본다.

제 2연평해전은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6월29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경비정에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한 국지전이다. 이날 전투로 우리 해군의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이를 흔히 ‘서해교전’이라고도 한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1200t의 천안함이 북한 해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침몰된 전투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 간에 논쟁이 많았으나 천안함 피격의 원인은 북한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연평도 지역의 포격은 2010년 11월23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연평도의 해병대기지와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무기로 100여발을 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해병대 대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민간인 2명 사망과 10명이 부상을 당한 국지전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켜 내고자는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진주시 향군은 ‘서해수호의 날’이 지정된 이후 매년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강 강변에서 대규모 관련행사를 시

행 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의 대북관계를 고려한 사회분위기와 자체 예산 부족으로 향군회원들에게 ‘서해수호의 날’ 의미를 문자로 홍보하고 현수막 설치만으로 그 행사를 대신하고 있어 안보단체의 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올해 3월26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날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국가안보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 된다. 그래야 지구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암울하지만 하다.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격렬히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의 파국 가능성을 경고 하였고, ‘코로나’ 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해안을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인 장자는 ‘샘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은 자신의 침으로 서로를 적서 준다’라는 글을 남겼다. 즉 현재 어렵고 힘들 이 상황을 공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국가안보의 위기와 코로나 시련을 잘 이겨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 신 용
경남 진주시 향군 회장

※ 본고는 3월21일자 경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동참해주세요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채취 참여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친·외가 8촌 이내)

참여방법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예비군 동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전화신청 : 1577-5625(시료채취키트 발송/방문 신청)
 - ※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지급
 - ※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현역장병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신청(참여 시 기념품 및 위로휴가 제공)

유해 신원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지급 | 대표전화 1577-5625 (오! 6.25)

성우회 창립 32주년, 회장단회의 개최

“창립 당시 지향 목표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2월26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행사와 함께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성우회는 이날 32년의 지난 역사를 되새겨 보고 창립 당시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벽돌하나 쌓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주요 추진업무 보고 및 당면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회장단 회의에서 이종옥 회장은 우리 군의 사기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군 기강확립과 전투기술 향상노력은 지휘관의 고유 기능이자 책임임을 강조하며 군 사법제도 개혁(안), 최근 전역장성들의 성우회 가입 활성화 방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성우회의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내용들을 파악한 뒤 마스트 플랜을 작



성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관련 동아일보 광고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중대한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결연히 성우회의 입장을 표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갑종장교전우회, 제16대 박환재 회장 취임

회원친목과 복지증진 통해 조직 결집

갑종장교전우회가 3월18일 제16대 회장으로 박환재 장군을 선출하고 회원 친목과 복지증진을 통해 조직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신임 박환재 장군의 취임식은 향군 회관 회의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열렸으며 갑종 제1기 남재한 전 국회의원, 제5기 박명철 전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원로와 갑성회장, 6·25참전 갑종전우회장등 약20여명이 참석,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검소하게 진행됐다.

갑종장교전우회는 1950년 1월에 태동하여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69년 230기까지 45,424명의 호국간성



이 배출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장교의 32%,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교의 65.7%가

갑종장교 출신으로 수많은 대 침투 작전에서 호국의 방패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2월 23일 ~ 21년 3월 22일)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7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1만원)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78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 (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 김주형씨가 1990년 8월16일 37사단 신병훈련소 동기 전광재씨를 찾습니다. (김주형 010 5871 6533)

◆ 이평화씨가 백마부대 30연대 2대대 5중대 1소대 전우 김순중, 김점용씨를 찾습니다. (이평화 010 8374 2616)

◆ 백창현씨가 1993년부터 1995년사이 20사단 107기보대 양주(덕정 역)에서 가팅 근무했던 전우 박성배, 이성호, 최재원, 김승집, 이태한, 박상기씨를 찾습니다. (백창현 010-9326-3276)

◆ 이선우씨가 2000~2002년쯤에 51군수지원단 수송대에서 제주도 출신으로 유류계를 담당했던 허병장님을 찾습니다. (이선우 010-3109-2204)

◆ 백상렬씨가 2008년07월 입대동기 어등산 사업단 이민호(1988년생)씨를 찾습니다. 저는 제1전투비행단 안에 파견나가 광주광역시(전남)에서 지냈으며 소속은 1118야전공병단 190대대 소속으로 파견시 2작전사령부 직할부대로 파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백상렬 010-4749-1148)

◆ 백진수씨가 육군36사단 기동타격대대 양중수 대장과 창설 멤버를 찾습니다. (백진수 010-2244-5079)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28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신세계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92) 1566-9988 : 수술비우대 적용

- 나움내과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네오타워빌딩2층) 031-928-5628 : 10~15%
- 성모편한내과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30 우리프라자4층) 031-3203-1275 : 10%
- 추부의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6) 041-753-6566 : 진료비 10%

식당/음료

- 한마리정육식당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번길 16) 031-821-1588 : 10%

기타

- 금성공업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 11) 043-732-4444 : 10%
- 스위스안경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27-3) 043-733-7805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

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직)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군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③ 칠곡 가산산성

임진왜란 후 100여년에 걸쳐 내, 외, 중성 완성 6.25 전쟁 당시 남과 북, 치열한 공성전 펼쳐



가산산성은 그 입지가 뛰어난 요새로 6.25전쟁 당시 가산산성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은 매우 치열했다.

가산산성은 해발 901m의 가산에 쌓은 석축산성으로 가산면 가산리와 동명면 남원리의 일부에 걸쳐 있다. 골짜기와 능선의 지세를 적절히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포곡식과 테포식이 혼란된 산성으로, 내성·중성·외성을 갖추고 있다. 당시 경상도에서는 믿을 만한 산성이 진주, 금오, 천생산 성밖에 없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적지에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성을 쌓기로 결심하고 가산산성을 축성했다.

인조 17년(1639)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에 의해 내성이 완성된 지 60년이 지난 숙종 26년(1700)에 외성을 축성했다. 중성은 영조 17년(1741) 관찰사 정익하의 건의와 주도로 축성되었으며 성벽 길이 602보에 여장 402첩, 중문 하나, 문루

하나, 별장이 머무르는 건물 등이 설치되었다. 100년 가까이 걸렸던 공사인 만큼 산성의 규모도 크다.

오랜 기간 힘들게 쌓였던 곳이지만 정작 요새 역할을 했던 것은 6.25전쟁 때였다. 6.25전쟁 당시 가산산성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은 매우 치열했다.

“우군기의 폭격이 시작되고 뒤를 이어 미군 및 사단 야전포병의 일제사격이 집중되자 가산산성 안은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아릅드리 낙엽송이 순식간에 별거송이가 되고 성벽 뒤에 웅크린 적병들이 밤송이 떨어지듯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가장 치열한 교전을 치른 제4중대는 180명이던 병력 중 몸이 성한 자는 장교 1명과 병사 10여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되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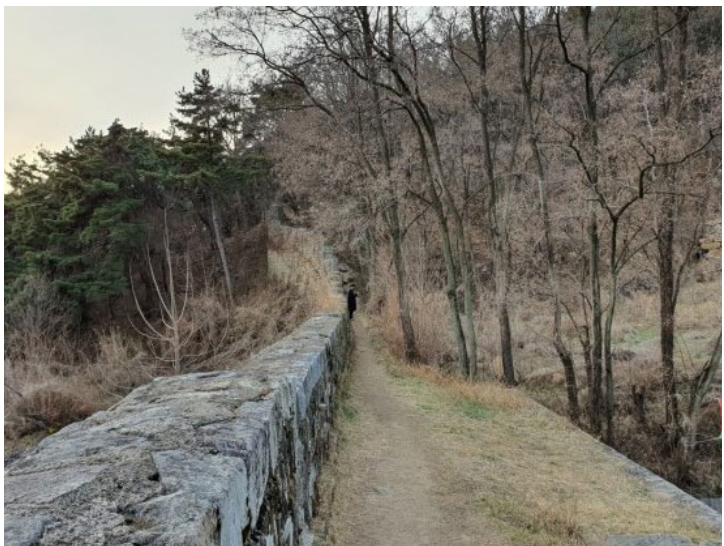
다. 가산산성에 침투한 북괴군 제 14연대도 1950년 8월27일 전투에서 와해, 약 400여 명만이 탈출했다고 한다.”

전사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가산산성은 그 입지가 뛰어난 요새였다.

가산산성은 외성의 남문으로 들어가 등산로를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남문을 지나 옛 천주사터에 새로 들어선 해원정사라는 절을 오른쪽으로 비켜 오르면 등산로가 시작된다. 동문까지가 한 고비, 첫 갈림길에서 왼쪽을 택하면 4.2km, 오른쪽을 취하면 5km를 걸어야 한다.

동문은 거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바깥쪽은 다듬은 돌을 짜 올려 무지개문을 만들고 그 안쪽은 장대석을 걸쳐 네모지게 마무리한 천장의 모습이 이채롭다. 문 좌우로 날개처럼 성벽이 이어진다.

동문에서 다시 1km를 가면 중문이 나선다. 근래에 복원하여 모양은 반듯하지만 옛맛은 없다. 중문을 지나 수백 미터 내려가면 가산바위다. 첩관으로 만든 층계를 올라 바위 위에 서면 멀리 서쪽으로 다부동의 전적비가 내려다보이고 유학산의 능선이 그 뒤를 막아서며, 골짜기를 뚫고 대교로 이어지는 5번 국도가 굽어보인다. 가산바위 위에 서면 가산산성의 입지를 살필 수 있고, 왜 다부동에서 그토록 처참한 전투를 치러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가산산성은 외성의 남문으로 들어가 등산로를 따라 둘러볼 수 있다.



건강정보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한 ‘흉추통증’ 1시간 마다 가볍게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 필요

흉추는 흉곽이라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구조물의 뒤쪽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쪽에 갈비뼈와 관절 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흉추통증 질환의 정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흉추 부위에 휴식 시나 운동 시 발생하는 통증을 포함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인

흉추통증의 발생 원인으로 일반적으로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등 주위의 근육에 대한 자극이다. 어깨는 양쪽의 어깨 주위 근육에 의해 견갑골과 흉곽 뒤쪽에 부착된다. 어깨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움직이지 못한 자세의 유지, 수상 등으로 인해 견갑골과 흉곽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흉추통증이 일어나게 된다.

두번째는 관절 기능 장애이다. 등이라고 불리는 흉추는 척추안의 관절들뿐만 아니라 갈비뼈와도 관절면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흉곽이라는 구조는 운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구조이나 갑작스런 부상이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변성으로 인해 흉추 관절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흉추의 디스크 탈출증, 흉추체의 압박성 골절, 감염성 척추체염, 대상포진, 강직성 척추염 및 섬유 근통증이 정형외과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흉추통증은 꼭 정형외과적인 원인 이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등 쪽으로 뻗치는 연관통이 있거나 상복부 동통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과뿐 아니라, 심장, 폐, 대동맥, 췌장을 포함한 장기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증상

흉추통증은 부상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를 시행했던 이후 시나브로 견갑골 주위부가 빠근하게 불편한 것에서 부터 앓거나 일어서는 자세시 심해지는 양상 등 증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흉추통증의 심각한 근본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에는 대한 인지도이다.

방사통 또는 가슴이나 복부의 바늘이 찌르는 것과 같은 따끔거림, 발열 또는 오한, 보행시 중심을 못잡거나 날로 심해지는 두통 등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나 사다리에서 넘어진 후에 지속적인 흉추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방법 및 수술(치료) 등 방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식, 자세 조정, 온찜질 또는 냉찜질 등 자가 관리를 통해 허리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 통증이 지속되더라도 수술적 치료 없이 약물, 물리 치료와 같은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흉추통증이 유발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디스크의 퇴행을 유발하는 흡연은 삼가는 것 또한 예방법이라고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보전략논단 발간

- 1천만 향군회원에게 국내·외 안보현안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안보분야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하여 2021년 3월부터 ‘안보전략논단’을 매월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향군홈페이지 ‘안보전략논단’ 배너에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바랍니다.

안보전략연구원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한미 외교·안보장관회의

이전보다 이해·협업의 우선...미래지향적 협력 다졌다

3월17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사이의 개별 회담에 이어 18일에는 2+2 즉 외교·국방장관의 동시회의가 이루어졌다. 2+2 회의는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 및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 갖는 상징성이 큰 회의다. 국가의 외교·국방 전 분야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동안 2+2 회의 자체는 네 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지거나 다자회담을 계기로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해 온 동맹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 동맹을 우선 방문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 인식과 전략방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대중정책의 방향성은 인정하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부재를 비판해 왔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동맹과의 협력 강화 및 동맹 간 협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동맹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여 동맹협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 및 상호 신뢰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약화시켰던 미국과 동맹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정권 출범 2개월 만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지속되는 다년 협상의 형태로 마무리된 것도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이 인상된 부분은 있으나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면서 다년간 협상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은 동맹관계 안정화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3월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



미동맹의 중요성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에 대한 양 장관의 공동인식과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한미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큰 진전이 있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공동 위협에 대한 대응,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협력적 동북아 안보구도 형성에서 중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같은 양 장관의 회담 결과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으로서 양국 국방당국 간의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월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루어진 2+2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강조와 함께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임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도 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에 대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대하고 역내 평화,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한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2+2 회의는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미가 상호존중하면서 이전이 있는 부분을 부각하기보다 상호 이해를 위한 노

력과 협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초 잠재적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으로 예상됐던 대중정책과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은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지난 16일 미일 2+2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지칭은 빠져있다. 대신 블링컨 장관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중국을 직접 지칭했다. '쿼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미 양 장관 모두 논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정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양국 간 강조점은 달랐지만 상호 지속적 소통과 협의, 공조의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측이 전례 없이 빠른 대북한 전략검토 완료 공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인식과 전략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동맹 협력의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노력과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지속 강화 및 업그레이드 노력은 결국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2+2 회의에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의 기대 및 의지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 신뢰의 기반은 마련되었다. 동맹의 진정한 견고함은 이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역량에 의해 평가된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본고는 3월19일 국방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향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한미 양국은 3월 10일 장기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은)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타결을 이끌어낸 양국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간의 확고한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1천만 향군은 높이 평가한다.

이에 향군은 미 국무부가 3월4일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리치핀)이라고 밝힌 것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동맹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향군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의 결단과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 미국은 1950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인원 179만명이 참전하여 3만 7천여명이 희생되었으며, 1953년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깃발 아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 국방부는 지난 2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와 함께 미국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양국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타결로서 향군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 지난 2월 4일 오전 한미정상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진전됐고,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 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또 서욱 국방부장은 지난 2월 17일 '제9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공동 국제회의'에 보낸 초청연설 영상에서 한미동맹을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한 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성공적인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2+2회담에서도 협상의 연장선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 되기를 촉구한다.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향군은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동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뒷받침할 것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